

# 세계은행, 쌀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분석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농산물 무역과 개도국(Global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농산물 무역정책의 쟁점사항 및 품목별 생산과 무역 패턴, 그리고 품목별 시장의 무역왜곡 현상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품목별 분석에서는 현행 무역정책 및 정책개혁에 따른 경제 전반의 후생 효과를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의 품목별 분석 가운데 세계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에 의한 쌀 수출입국의 후생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 1. 주요 쌀 시장의 정책 왜곡

세계 쌀 시장은 주요 쌀 수입국의 높은 수입관세 및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 TRQ)와 주요 쌀 수출국의 가격지지(price support)에 의해서 왜곡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쌀의 평균 관세가 2000년 43.3%로, 품종별 관세를 살펴보면, 중·단립종 쌀은 217%, 장립종 쌀은 21%에 달하고 있다.

장립종 쌀에 비해 중립종 쌀 시장은 시장왜곡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등 주요 중립종 쌀 수입국은 높은 관세와 TRQ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또한 시장왜곡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2000~02년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가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쌀 가공산업(milling industries)에 대한 무역보호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미, 남미, 유럽연합(EU)은 이런 무역보호로 인해서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가공도별 관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도별 장립종 쌀에 대한 관세가 EU의 경우, 현미(brown rice)가 46% 수준인데 반해, 백미(milled rice)는 80% 수준에 달하고 있다. 멕시코의 장립종 쌀에 대한 관세는 논벼(paddy rice)가 10%인데 반해, 백미는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표 1>.

경사관세의 효과는 세계 교역 흐름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고품질 장립종 백미의 무역은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진 있는 반면, 현미와 논벼의 무역은 경사관세가 높은 국가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품질 장립종 쌀에 대한 무역 가중치(trade-weighted)를 감안한 평균 관세의 경우, 백미가 4.3%, 현미 31.4%, 논벼 16.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순 평균 관세의 경우, 백미가 13.7%, 현미 18.7%, 논벼가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쌀 무역에서 보호 수준이 가장 큰 품종은 중·단립종 쌀이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의 쌀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해서 세계 수출가격이 100%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쌀 수출국들만이 중·단립종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단립종 쌀의 무역자유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생산비용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호주, 이집트, 미국 등 다른 쌀 수출국에 비례하여 상당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중·단립종 쌀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남미 쌀 수출국이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량해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대성 혹은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는 대다수 쌀 수출개도국들은 중·단립종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갖춘 품

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호주와 미국의 쌀 생산은 물 부족 현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1 국별 관세 및 TRQ 수준, 2002~03

단위: %

국가	장립종				단립종			
	일반미	향미	현미	논벼	백미	현미	TRQ (천톤)	
방글라데시	22.5	22.5	22.5	22.5	22.5	22.5	5,320	
브라질	15.0	15.0	13.0	13.0	15.0	13.0		
캐나다	0.0	0.0	0.0	0.0	0.0	0.0		
중국	1.0	1.0	1.0	1.0	1.0	1.0		
코스타리카	35.0	35.0	35.0	20.0	35.0	35.0		
코트디부아르	32.0	32.0	12.0	7.0	32.0	12.0		
EU	80.0	71.0	46.0	146.0	75.0	64.3		
인도	70.0	70.0	80.0	80.0	70.0	80.0		
인도네시아	21.0	16.1	25.0	35.0	14.3	15.6		
일본(엔/kg)	341.0	341.0	341.0	341.0	341.0	341.0		682.0
한국	5.0	5.0	5.0	5.0	5.0	5.0		204.0
말레이시아	0.0	0.0	0.0	0.0	0.0	0.0		
멕시코	20.0	20.0	20.0	10.0	20.0	20.0		
나이지리아	50.0	50.0	50.0	50.0	50.0	50.0		
필리핀	50.0	50.0	50.0	50.0	50.0	50.0		
러시아	5.0	5.0	5.0	5.0	5.0	5.0		
세네갈	12.7	12.7	12.7	12.7	12.7	12.7		
대만	0.0	210.0	0.0	0.0	210.0	229.4		
터키	35.0	27.0	35.0	27.0	35.0	35.0		
미국(달러/톤)	14.0	14.0	21.0	18.0	14.0	21.0		

주: 1) 일본과 미국은 종량세 기준임.

2) 한국의 TRQ 물량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기준임

세계 쌀 시장에서 장립종 쌀은 중·단립종 쌀에 비해 그 보호 수준이 낮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은 저품질 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쌀 가격이 완전 자유화에 비해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저소득 쌀 수입 개도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품질 장립종 쌀 수출 개도국인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의 생산자들은 이런 세계 쌀 가격의 하락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립종 쌀은 중·단립종 쌀의 관세보다 매우 낮은 반면, 가공도별 관세격차(tariff escalation)는 EU, 중미, 남미에서 훨씬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쌀 시장의 보호로 인해서 현미와 논벼에 비해 고품질 장립종 백미의 국제 시세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태국, 베트남, 미국 등과 같이 고품질 장립종 쌀을 수출하는 국가의 가공산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품질 장립종 백미의 시장보호로 인해서 국제 시세가 약 10~20%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쌀 무역자유화의 무역 및 가격 효과

세계은행은 공간균형 모델(spati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서 수입관세 및 수출보조 철폐(무역자유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며, 가격조정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000년 무역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세계 쌀 교역량은 기준치(baseline)에 비해 15%(약 350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역가중치를 감안한(trade-weighted) 수출가격은 32.8% 상승하고, 수입가격은 13.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호수준이 높은 중·단립종 쌀의 교역량은 73%나 증가하며, 수출가격은 91%나 상승하고, 수입가격은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호 수준이 높은 중·단립종 현미의 교역량은 141% 증가하며, 수출가격은 200% 상승하고, 수입가격은 41%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단립종 백미의 교역량은 59% 증가하며, 수출가격은 71% 증가하고, 수입가격은 2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쌀 무역자유화 모의실험 분석결과, 2000

단위: 톤, 달러/톤

구분		교역량 및 수출입가	기준치 (A)	자유무역 (B)	변화율(% (B-A)/A		
장립종	고품질	논벼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1,035,320 149.21 185.51	1,081,254 154.67 166.89	4.4 3.7 -10.0	
		현미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856,798 223.75 363.32	916,721 219.25 250.64	7 -2.0 -31.0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7,495,594 225.97 262.06	7,704,482 225.58 252.16	2.8 -0.2 -3.8	
	저품질(백미)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8,084,093 177.05 248.19	9,149,728 188.7 213.09	13.2 6.6 -14.1	
	향미(백미)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2,449,711 265.24 511.2	2,467,502 267.07 299.07	0.7 0.7 -41.5	
	소계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19,921,516 206.87 287.45	21,319,687 210.68 236.43	7 1.8 -17.7	
	중·단립종	현미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483,063 271.8 1438.54	1,162,478 814.47 842.75	140.6 199.7 -41.4	
			백미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2,487,760 367.71 855.89	3,946,170 628.92 645.69	58.6 71 -24.6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2,970,823 352.11 950.63	5,108,648 671.14 690.53	72 90.6 -27.4
		소계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2,970,823 352.11 950.63	5,108,648 671.14 690.53	72 90.6 -27.4
총계(장립종, 중·단립종)		교역량 수출가 수입가	22,892,339 225.71 373.51	26,428,335 299.69 322.97	15.4 32.8 -13.5		

고품질 장립종 쌀이 중·단립종 쌀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교역량은 논벼가 4%, 현미가 7%, 백미가 3%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립종 쌀의 수출가격이 2% 상승한 반면, 수입가격은 18% 하락(논벼 10%, 현미 31%, 백미 4% 하락)하여 쌀 수입국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쌀 교역량의 증가는 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저품질 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쌀 교역량이 13% 증가하고, 수입가격은 14% 하락하여 저소득 개도국의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쌀 시장의 무역보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가격이 7% 상승하여 개도국의 생산자 후생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미(fragrant rice) 시장이 무역자유화 될 경우 수입가격이 41.5%나 하락하는 반면, 교역량과 수출가격은 각각 0.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3. 쌀 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세계 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세계 전체의 경제적 잉여(surplus)는 연간 7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입국의 순 잉여는 54억 달러인 반면, 수출국의 순 잉여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의 증대는 국가별, 품종별, 가공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3.1. 쌀 수출입국에 미치는 효과

무역 자유화로 인해서 대다수 쌀 수입국의 소비자 잉여가 약 328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272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여하는 일부 수입국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29억 달러의 세수(tax revenue)가 사라지는 한편, 국내보조의 철폐에 따른 27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저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출국의 생산자 잉여가 가격 상승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703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688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쌀 수출국 가운데 중국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전(transfer)으로 인해 순 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쌀 품종별 효과

중립종 백미 시장의 무역자유화는 세계 전체의 잉여를 6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입국의 잉여가 34억 달러, 수출국은 9억 5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립종 현미 시장의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수입국은 10억 달러, 수출국은 4억 4,900만 달러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립종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는 세계 잉여를 11억 4,000만 달러 증가시키고, 이 가운데 수입국은 10억 6,000만 달러, 수출국은 8,000만 달러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품질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는 세계 잉여를 2억 1,800만 달러 증가(고품질 백미의 경우 6,900만 달러, 현미의 경우 1억 2,400만 달러 증가)시키고, 이 가운데 수입국은 1억 9,500만 달러, 수출국은 2,300만 달러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논벼 시장의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출국이 240만 달러, 수입국은 2,240만 달러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품질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수입국은 3억 1,500만 달러, 수출국은 5,200만 달러의 후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후생의 개선은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미 시장의 무역자유화는 수입국의 후생을 5억 4,700만 달러 증가시키며, 이런 후생 개선은 주로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도, 태국, 파키스탄 등 향미 수출국의 경우 자국 내 생산자의 후생은 상당히 증가하지만, 순 후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 국별 쌀 무역자유화 효과

#### 3.3.1. 수입국

##### 가. 아시아

쌀 시장의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일본은 쌀의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립종 백미 가격은 3,098 달러/톤에서 656달러/톤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39만 2,000톤에서 21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후생은 연간 3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생산자 잉여는 192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24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무역자유화에 의해 한국의 중립종 쌀 수입량은 30만 6,000톤으로 증가하며, 가격은 1,952달러/톤에서 840달러/톤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향미를 수입하는 것으로 상정했을 때, 무역자유화와 함께 향미 가격은 2,003달러/톤에서 288달러/톤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62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 잉여는 59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무역과 후생의 변화가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전체 후생의 증가는 작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저품질, 장립종 쌀을 주로 수입하는 필리핀의 경우,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은 수입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78만 7,000톤에서 10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연간 7억 1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 잉여는 6억 2,9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 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저품질 장립종 쌀 수입에 대한 관세 개

혁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수입량은 130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감소하며, 가격은 228달러/톤에서 196달러/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잉여는 연간 1억 2,000만 달러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억 7,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나. 기타

아시아 이외의 수입국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쌀 무역자유화로부터 순 후생이 연간 1억 4,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인 EU의 고품질 장립종 현미 수입량은 45만 1,000톤에서 58만 8,000톤으로 증가하고, 수입가격은 496달러/톤에서 260달러/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전체의 순 후생은 연간 1억 3,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증가분은 중립종 쌀 수입가격의 상승(372달러/톤에서 624달러/톤으로 상승)에 의해 다소 상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장립종 쌀 수입량은 64만 5,000톤에서 59만 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EU 전체의 생산자 잉여는 1억 900만 달러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2억 5,400만 달러 증가하여 순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3.3.2. 수출국

#### 가. 아시아

세계 최대 중립종 쌀 생산국인 중국은 중립종 쌀의 무역자유화로부터 최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량은 61만 4,000톤에서 147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출가격은 270달러/톤에서 647달러/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립종 현미의 수출량은 11만 3,000톤에서 40만 3,000톤으로 증가하고, 수출가격은 233달러/톤에서 834달러/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저품질 장립종 쌀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수출량이 190만 톤에서 230만 톤으로 증가하고, 수출가격은 178달러/톤에서 190달러/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중국의 생산자 잉여는 642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636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품질 장립종 쌀 수입국이 관세 개혁(무역자유화)을 할 경우,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이 품종의 수출국인 베트남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출량은 270만 톤에서 310만 톤으로 증가하고, 수출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고품질 장립종 백미의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베트남은 이 품종의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출가격뿐만 아니라 수출량이 소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2억 2,9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2억 1,0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쌀 시장에서 보호 수준이 낮은 장립종 쌀만을 수출하는 태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량의 경우 고품질 장립종 백미는 330만 톤에서 340만 톤으로 증가하고, 저품질 장립종 백미는 160만 톤에서 180만 톤으로 증가하며, 향미는 121만 톤에서 123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가격의 소폭 상승에 따라 생산자 잉여는 연간 1억 2,3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억 1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장립종 쌀 생산자의 잉여는 9억 7,3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9억 6,7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나. 기타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쌀 시장의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립종 백미 수출량은 22만 6,000톤에서 38만 3,000톤으로 증가하며, 수출가격은 270달러/톤에서 617달러/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립종 현미 수출량은 29만 2,000톤에서 59만 4,000톤으로 증가하며, 수출가격은 296달러/톤에서 803달러/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의 생산자 잉여가 22억 달러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가 190억 달러 감소함에 따라 순 후생은 3억 2,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3대 중립종 쌀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중립종 백미의 수출량은 47만 5,000톤에서 75만 6,000톤으로 증가하고, 수출가격은 271달러/톤에서 615달러/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순 후생은 2억 1,1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립종 현미 수출가격은 235달러/톤에서 805달러/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생산자 잉여는 10억 3,0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7억 4,5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4대 중립종 쌀 수출국인 이집트는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중립종 쌀 수출량이 32만 6,000톤에서 44만 8,000톤으로 증가하고, 수출가격이 298달러/톤에서 629달러/톤으로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 잉여는 13억 9,000만 달러 증가하며, 소비자 잉여는 12억 6,000만 달러 감소하여 순 후생은 1억 2,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3.3.3. 기타 국가

무역장벽 없이 쌀을 수입해 온 개도국을 포함한 일부 수입국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 수입국은 다른 수입국의 쌀 시장 보호로 인한 세계 쌀 수출가격의 하락세에 힘입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역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가공도별 모든 품종의 수출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 시장의 수입 보호조치가 전무한 국가의 경우, 특히 중립종 쌀을 주로 수입하는 터키 등은 무역자유화 이후 수출 공급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터키의 순 후생 손실은 1억 3,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 보호조치가 전무한 장립종 쌀 수입국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4. 결론

주식으로서 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쌀 무역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제한된 무역 현상은 쌀 등급이나 특정 품종에 대한 선호(preference), 식량안보(food security) 목적의 보호주의 정책, 생산자에 대한 가격 및 소득지지에 기인하고 있다. 무역가중치를 적용한 쌀의 평균 수입관세가 2000년 43%인데 반해, 가공도별 관세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쌀 가공산업을 보호하려는 쌀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쌀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서 쌀 가격은 다른 품목의 가격에 비해 더욱 불안정하다. 아시아의 쌀 생산은 주로 몬순 기후 지역에서만 생산되며, 세계 쌀의 무역은 형태별(장립종, 중·단립종), 가공도별(현미, 백미, 벼 등), 품질별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주식으로써 쌀 수요는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높은 보호 수준, 지역 집중, 시장분리,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 공급, 가격 및 소득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쌀 가격과 교역량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쌀 무역의 왜곡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은 국영무역을 통해서 쌀 무역을 관리함에 따라 수출경쟁 및 가격설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

일본, EU,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 쌀 수출입국의 국내정책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EU은 국내보조를 통해 암묵적 수출보조의 효과를 제공하며, 일본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가격을 지지하고, 엄격한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 TRQ)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 쌀의 무역보호 조치가 철폐될 경우 경제적 후생은 연간 74억 달러 이상 향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 후생의 증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득이전과 수입관세의 철폐를 통해서 달성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수

입국의 소비자 잉여가 328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 잉여는 272억 달러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29억 달러 감소하며, 국내보조 철폐에 따라 27억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쌀 수입국의 순 후생은 5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쌀 수출국의 생산자 잉여가 702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688억 달러 감소하고, 관세수입이 530만 달러 감소하는 반면, 국내보조 철폐에 따라 5억 9,800만 달러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수출국의 순 후생은 2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세계 무역정책 개혁에 따라 쌀 무역은 10~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쌀 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출가격은 25~35% 증가하는 반면, 수입가격은 1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쌀 시장은 상대적으로 엷은 시장(thin market)을 형성하고 있는바, 완전 무역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쌀 무역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6.5%에서 2012년 8.4%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000~03년 세계 쌀 재고량이 30%까지 감소함에 따라 공급충격을 완화할 재고 능력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저소득, 쌀 순수입국은 세계 쌀의 무역에 의존함으로써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품종이 중립종 쌀 시장이므로 정책개혁 효과는 중립종 쌀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 경제 후생 증가분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중립종 쌀을 수출하는 호주, EU,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또한 무역정책 개혁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무역개혁 이전 보호조치가 전무한 국가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본과 같은 거대 쌀 수입국의 수입 증가로 인한 중립종 쌀의 수요증가와 세계 쌀 수출가격의 상승세에 기인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EU는 국

내 정책개혁에 따라 시행 초기에 쌀 수출량이 5% 미만 감소하는 반면, 수출가격은 5~10%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초 이후 추진된 다자 및 지역 간 무역정책 개혁이 쌀 무역 확대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한국과 일본 등의 폐쇄된 시장을 개방시키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같은 지역 간 협정은 서반구 지역의 쌀 무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향후 WTO/DDA 협상의 성공 여부가 시장접근 확대, 관세감축, 수출보조 등의 규제 수준에 달려 있고, 이런 쟁점사항들은 보고서에서 추정된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달성하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료: World Bank. Global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2005.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